2010 남아공 월드컵

김학범이 본 나이지리아 공략법

"뉴질랜드 전체가 얼어붙었을 것이다" 나라 전체가 얼어붙었을 것이다. 월드컵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수많은 이변을 봐 왔지만 이만한 일은 없었다.(리키 허버트 뉴질랜드 대표팀 감독. 이탈리아와 조별리그 2차전을 1-1로 비긴 뒤.)

무조건 전진압박…짧은 패스를 끊어라

김학범의 월드컵 포커스

| 나이지리아 전력 집중해부

운명의 한 경기가 남아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쏟아지지만 지름길은 한국이 무조건 나이지리아를 꺾고 승점 3을 확보하는 것이다. 김학범 스포츠동아 해설위원(전 성남일화 감독) 역시 "비긴다는 생각을 버리고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치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이 나이지리아 전력을 집중 분석했다.

1 디펜스 실종

개인기 위주 플레이 '모래알 팀워크'
공격 본능만 강해 수비땐 책임 전가

2 전원 경계대상

볼 다루는 기술 천부적·탄력 뛰어나
날카로운 슛·세트피스 킥도 예리해

3 무조건 에워싸라

선수간 '볼 지역' 분담해 차단해야
수비 뒷공간 빈틈 충분히 노려볼만

●나이지리아는 오직 공격 본능

나이지리아는 1차전 아르헨티나를 맞아 4-3-3 포메이션으로 시작했고, 2차전 그리스와 대결에서는 전형적인 4-4-2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포메이션에 크게 얽매이지 말자. 어디까지나 상대에 따른 벤치의 선택일 뿐. 다만 나이지리아 축구의 특성을 짧게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공격 본능'을 꼽고 싶다. 그들은 공격에 치우친다.

디펜스의 경우, (라예르베크) 감독이 "넌 수비수야"라고 일일이 지정해주지 않으면 서로 미루는 분위기다. 전체가 볼을 빼앗겼을 때 압박하고 상대를 에워싸는 모습도 잘 보이지 않는다. 선수들 모두 워낙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탓에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아프리카 축구에서 다이내믹한 플레이가 잘 보이지 않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측면이든, 중앙이든 딱히 짜여진 루트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도 긍정이 아닌 부정적인 의미가 보다 많이 섞여있다.

일정한 공격 패턴이 없다는 것은 상대가 수비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상황도 전제할 수 있지만 나이지리아는 선수들 서로 간에 호흡이 잘 맞지 않아 고집스러울 정도로 개인기 돌파를 시도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책임을 서로 전가한다고나 할까?

물론 볼을 상대에 내줬을 때 수비 가담도 워낙 느려 쉽게 공간을 내주곤 한다. 촘촘해 보이지 않고 뭔가 헐거워 보이는 팀이다.

●패스 좋은 미드필더 부재

나이지리아의 고민은 패스가 좋은 미드필더의 부재라고 하겠다.

아르헨티나전을 앞두고 우리는 리오넬 메시를 주목했고, 여기에 수비 초점을 맞췄다. 그리스전은 사마라스와 게카스를 걱정했다. 이들을 어떻게 봉쇄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린 것도 사실이었다.

헌데, 나이지리아에는 메시, 사마라스처럼 '키 플레이어'로 꼽을 만한 선수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 나이지리아 중원을 이끌 것으로 보였던 존 오비 미켈이 부상으로 대회 불참을 선언한 게 다른 국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만만히 얕잡아볼 수는 없다. 매서운 부분이 꽤 여럿이다.

나이지리아는 긴 패스가 아닌, 짧은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간다. 일단 볼을 잡는 순간부터 움직인다. 킬링 패스는 없지만 볼을 갖고 움직이는 천부적인 감각과 탄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다.

개인기에 파워까지 두루 가미한 아르헨티나와는 조금 다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최전방을 맡을 야쿠부와 오뎀윙기에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 통통 튄다고나 할까?

아프리카 특유의 템포와 리듬을 두루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으로 말하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슛도 매우 위협적이다. 짧게 끊어먹기보다는 '통렬하다'는 표현이 맞다. 일단 찬스가 오면 주저하지 않고 때리고 본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절묘하게 감아 차는 킥의 날카로움도 경계 대상이다.

● 전진 압박하라

무엇보다 우리부터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다행히 허 감독은 4-4-2 포메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아르헨티나전에서 가동된 4-2-3-1 형태는 조금 맞지 않는 듯 했다.

자, 상대가 볼을 잡고 우릴 향해 올라오기 시작한다. 해법은 하나다. 전진 압박이다. 짧은 패스를 끊어놓기에 적절한 전략이다. 카메룬전을 승리한 일본이 그랬다.

볼이 투입되는 시점에 맞춰 '볼 지역'을 철저히 에워싸라. 철저히 지역을 분담해 균등하게 임무를 맡도록 하자. 볼이 있는 지역만 압박해줘도 쉽게 누를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앞 선에서 볼을 갖고 있을 때 강해 보이지만 오디아-시투-요보가 이끄는 수비진은 2대1 패스 후 이동하거나 뒷공간을 향해 돌아 들어가는 플레이에 허점을 자주 드러냈다.

나이지리아의 왼쪽 측면 밸런스가 무너진 것도 고무적이다. 주전 왼쪽 풀백 타이워가 부상당했고, 대체 멤버 역시 부상으로 제 컨디션이 아니다.

누구든 그 위치를 메우겠지만 자신의 포지션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역할 대행을 하기에는 무리다.

우리는 오른쪽 측면을 주요 침투 루트로 삼도록 하자. 이청용과 차두리가 돌파하다 보면 공간이 열린다. 물론, 나오지 않고 자신의 공간을 지키는 상대 수비수의 특성을 고려하면 반대쪽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다양한 루트를 확보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부분이다. 아프리카는 포기할 때는 과감하다. 나이지리아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여길 집중 공략하자. 승리가 필요하니 강하게 나올테지만 초반 골을 넣지 못하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가나는 호주전에서 상대 한 명이 퇴장당해 수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심리적으로 다급한 상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자.

정리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나이지리아의 '승리 염원 기도' 효과 있을까 나이지리아 선수들이 21일(한국시간) 리처즈 베이 음흘라투제 스포츠콤플렉스에서 열린 공개 훈련에 앞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다. 한국 못지않게 나이지리아 역시 3차전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리처즈 베이(남아공) | 연합뉴스

월드컵 생생 메신저

본사 | 최현길 축구팀장 choihg2@hotmail.com
더반 | 최용석 기자 gtyong@hotmail.com
더반 | 윤태석 기자 sportic@hotmail.com

나이지전 혹시라도 비오면 골치 아픈데…

●결전의 땅 더반에서의 첫 날…대표팀 화기애애

최현길: 둘이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는 풀었냐.
최용석: 라면으로 회포 풀었죠.
최현길: 용석이가 선배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줘라.
윤태석: 맛있는 거 얻어먹었습니다. 데판야끼(철판구이)를 먹었는데 더반의 해안가를 보며 먹으니 더 맛나더군요.
최현길: 첫 날 밤 훈련은 어땠니. 화면으로 보니 화기애애하던데.
윤태석: 어제 족구하면서 분위기를 한 번 바꾼 것 같아요. 이제 패배의 그림자는 전혀 보이지 않네요.
최현길: 오늘 밤이 마지막이니까 잘 보내야 할텐데. 독자들이 너희들 얘기 재미있어 한다. 오늘도 한건 하자.
윤태석: ㅎㅎ 아무래도 김정우가 화제입니다. 여기서 연일 맹활약을 보이고 있는데다 6월에 일병으로 진급해서 월급도 좀 올랐다네요. 김정우는 해외 원정 온 게 아니라 파병온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구요.
최용석: 어제 훈련장에서 김정우 인터뷰 할 때 뒤에서 누가 보더니 여기 와서 머리 너무 길었다고 일병 되더니 빠졌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던데. ㅋ

●쇠뽕 준비해뒀지만…껄끄러운 수중전

최용석: 내일 여기 날씨가 비가 오는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강수확률은 20%, 수중 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최현길: 비 오는 건 우리로서도 썩 좋은 건 아냐.
윤태석: 한국이 남아공에 오기 직전 몇 차례 수중전 경험이 있으니 그래도 나이지리아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최용석: 여기 잔디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물기가 많으면 많이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축구화 쇠뽕(스터드)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듯 합니다.
최현길: 패스의 정확도 등을 따져보면 우리가 유리한 게 없을 듯 하기도 하네. 1월 남아공 전훈 때 잠비아에 4골이나 먹을 때도 비가 부슬부슬 올 때였는데, 축구화가 잔디에 붙어있질 않더라구. 뭐에 홀린 듯 마구 골을 먹는데 처참했지. 그래서 개인적으론 비가 안 오길 바래.
최용석: 나이키 직원이 현재 대표팀에 들어가 있는데요. 선수들 모두 쇠뽕 준비해놓았다고 별문제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전승 우승 마라도나의 약속…그리스 꼭 꺾기를…

최현길: 한국에선 우리 경기도 중요하지만, 아르헨-그리스 전 결과에도 관심이 많다. 그 쪽 분위기는 어때.
윤태석: 대표팀은 아르헨-그리스 전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안 꺼내요. 우리가 이기면 별 문제 없다는 식의 자기최면이라고나 할까요.
최용석: 참, 하나 이야기하면 아르헨티나 캠프에 있을 때 마라도나 감독하고 선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무조건 7경기 모두 승리해서 우승한다. 그들이 약속을 지켜주길 바래야죠. 아르헨티나 언론이 워낙 비판적이라서.
최현길: 좋은 얘기네, 한국 팬들을 안심시키는.

●16강 오르면 김치찌개 먹을수 있어요. ㅎㅎ

윤태석: 한국이 16강에 오르면 취재진도 간만에 고국의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축구협회 홍보담당관 이원재 부장이 16강에 오르면 대표팀 김형채 조리장의 김치찌개를 맛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최현길: 그럼, 그날 우리도 한국에서 김치찌개로 회식한다.
최용석: ㅎㅎ 김치찌개 말만 들어도 배고프네요. 한국음식을 워낙 못 먹어서.
윤태석: 소주도 한 잔 하시겠군요.
최현길: 당근ㅋ

부상 타이워도 예외없다…나이지 전원 훈련

23명 한국전 앞두고 최종 컨디션 점검

한국과 경기를 앞두고 마지막 훈련 중인 나이지리아의 훈련장 분위기는 예상보다 밝았다. 경기가 열리는 더반에서 약 200km 떨어진 리처즈 베이라는 한적한 도시에 머물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21일 낮 12시30분(현지시간)부터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정보다 15분 늦게 나타났다.

선수들은 훈련장에 들어서며 농담을 주고받는 등 즐거운 모습이었다. 조별리그 2연패했지만 16강 진출 가능성이 남아 있어 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일부 선수들은 캠코더로 동료들의 모습을 찍는 여유로움까지 보였다.

선수들이 하나둘씩 준비를 마치자 라르스 라예르베크 감독이 모든 멤버들을 모았다. 그리고는 짧게 이야기를 하며 선수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전 멤버가 함께 손을 잡고 짧은 기도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훈련이 시작됐다.

이날 훈련은 15분만 공개돼 모든 장면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것도 훈련 시작 후 15분 공개가 아닌 경기장 도착 후 15분 공개였다. 취재진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부상자들 전원이 팀 훈련에 복귀했다는 것이 유일했다. 23명 전원이 축구화를 신고 그라운드를 돌며 몸을 풀기 시작했다. 그리스전에서 부상을 입었던 타예 타이워, 우와 에치에질레 등도 컨디션을 회복해 한국전 준비에 돌입했다.

훈련이 시작된 직후 나이지리아축구협회 관계자와 인사들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아모스 아담, 루루 아브둘라히 나이지리아축구협회장, 보라지 오조오바 축구협회 사무총장, 오구조비 축구협회 기술위원 등이 훈련장에서 대표팀 관계자들과 만난 뒤 훈련을 지켜봤다.

타이워

리처즈 베이(남아공)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민성기 기자 min3654@donga.com

〈광 고〉

(무)누구나 하나씩 정기보험 사고든 또는 질병이든 구분없이 사망시 3억 보장!

질병사망이든 사고사망이든 구분 없이 사망시 3억 보장 (2년이내 자살 및 고의적 사고 제외) 한번쯤 집안의 가장이 되어 "내가죽는다면"이란 상상을 해보게 된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닥칠 일을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대책이 없고 그저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로 결론이 난다.가장이 사망할 경우 가정자체가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는 집이 너무 많다. 이러한 가정을 비롯해 요즘은 신혼부부나 부모님들이 결혼한자녀들을 위해서도 사망보험의 가입자는꾸준히 늘고 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가입한 사망보장보험이 단순히 암사망이나재해사망 등 특정사망만 보장하는 보험일수 있다. 가입한 보험이 특정사망 보장에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질병 / 사고 구분 없이 사망 시 3억 보장(2년이내 자살 및 고의적 사고 제외) 전문가들은 10대 자녀를 둔 40대 가장의 경우 대체로 연봉의 5배정도의 자산을 남겨 줄 수 있어야 유가족들이 큰 어려움 없이 생계를꾸려갈 수 있다고 한다. (무)누구나하나씩정기보험은 자연사를 포함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을 비롯하여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당뇨합병증 등 질병으로 사망을 하든 폭발, 익사, 화재 등 사고로 사망을 하든, 사망할 경우 3억원이 보장되며(2년이내 자살 및 고의적사고 제외),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4억5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지급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망한 경우 6억원을 마찬가지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도 보장(특약가입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도 진단 확정시 4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보장한다(가입2년이내 진단 시 50%만 지급) 보험보장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이 된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보험료 예시(월납)

구분	여자	남자
30세	41,200원	59,400원
40세	61,400원	109,600원
50세	102,400원	219,000원

⇒주보험3억원+(무)플러스2대질환특약(갱신형) 2천만원/80세만기, 전기납,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 만기 자동갱신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80세까지 갱신 가능)

※해지 환급금 예시(기준:40세 남자,천단위)

경과기간	보험료누계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년	735	1,315	0	0	0.00%	0.00%
3년	2,210	3,945	11	52	0.50%	1.30%
5년	3,684	6,575	46	545	1.25%	8.30%
10년	7,368	13,150	0	0	0.00%	0.00%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청약철회 : 통신판매 계약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림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음
. 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 경우에는 건강진단포함) 청약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보장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정신질환자 및 고의로 인한 사고등은 보장에서 제외
. 위험직종에 따라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수 있음
. 가입연령과 기계약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할수도 있으며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란의 고지유무에 따라 진단서 혹은 건강진단이 추가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음
. 진단병명 및 위험직(업)종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에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무료상담
080-420-8585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580호(2010.05.27)